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9월 4주차 동향 [9.21.~9.27.]

민원 동향

순위	민원 키워드	주요 내용	건수
1	불법광고물	전단지, 현수막 등 신고	3,695
2	쓰레기 무단투기	무단투기 신고	3,504
3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요청	2,781
4	●●지구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1,943
5	@@@역 변전소	변전소 설치 반대	747
6	위례신사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공개 요청	590
7	불법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인터넷 광고 등 신고	521
8	◆◆지구 초등학교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	597
9	대장홍대선	검단구청역 신설 및 청사 건립 등 요청	289
10	제2경인선	조속 추진 요구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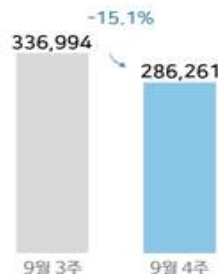
위례신사선
데이터센터 반대
고양은평선
대장홍대선 제2경인선
불법광고물
쓰레기 투기
변전소 설치 반대
학교설립 요구
인터넷 의료광고

※ 국민신문고, 지자체 별도 창구로 접수되어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 분석결과(교통단속민원 제외)

※ 9월 1주차 대비 순위 신규진입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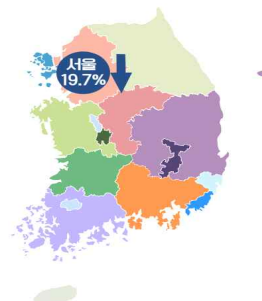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9월 4주차 민원은 286,261건(일평균 40,894건)으로 지난주(336,994건) 대비 15.1% 감소



【 지역별 증감 현황 】

지역별로는 서울(19.7%), 세종(18.8%) 등 감소



주요 민원

□ ◆◆ ○○○시 △△산단 축사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요청[43건]

○ 최근 주거지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에 대한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민원 제기

- **검토요청** 최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받고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단순히 축사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냄새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악취가 발생하면서 주거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날씨에 따라 냄새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나, 악취가 발생하는 날에는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냄새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예전보다 확실히 심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간혹 축사 냄새가 느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냄새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발생하는 횟수도 많아져 주거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9.26.)
- 최근 날씨가 상당히 선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심한 분뇨 악취 때문에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하는 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조금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야외에서 러닝이나 산책을 하다가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며, 두통이나 메스꺼움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새벽이나 밤 시간대입니다. 잠을 자다가 심한 분뇨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창문을 닫고 있어도 냄새가 실내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밤 기온이 선선해 자연환기만으로도 충분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해 문을 모두 닫은 채 에어컨을 켜고 잠을 자는 세대가 많습니다.(9.23.)
- 최근 악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심한 가축분뇨 냄새가 주변까지 퍼져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시간대에는 외부 활동이나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냄새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축사의 악취 발생 및 관리 실태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한 현장 점검과 악취 저감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지속적인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점검 및 악취 저감 조치를 요청드립니다.(9.25.)

□ ♣♣ ♦♦시 ♠♠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요구[597건]

○ ♠♠지구 내 학생 수 증가 및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지구의 입주가 진행되고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학부모로서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지구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배정될 경우 통학 거리가 길어지고, 어린 학생들이 대로와 복잡한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학생 수요와 향후 인구 증가를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아이들이 먼 거리나 위험한 통학로를 이용하지 않고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9.21.)
- ♦♦ ♠♠지구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로서, ♠♠지구 내 초등학교의 적기 개교와 안전한 통학환경 확보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민원을 드립니다. ♠♠지구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공동주택용지의 개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는 시작되는데 학교 개교가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9.21.)

□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 요청[119건]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교원(특수교사) 정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요청

- 현재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은 이러한 증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1명의 교사가 8~10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교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특수교사 1인이 다수의 학생을 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9.27.)
-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와 교육적 필요를 고려하여 특수교사가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9.22.)

알 림 판

1.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

‘주요민원 검토요청 사례’는 한 주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에 수집된 민원 중 증가 추세이거나 관계 기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 이후 조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금주의 검토요청 사례 >

페이지	제목	민원번호	소관기관
2P	◆◆ ○○시 △△산단 축사 악취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 요청	1AA-2609-1155208	충청북도 청주시

2. 민원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빈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